

<김승원 수사, 이재명 대통령 위으려 시작했다>

한동훈 검찰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찰수사 초기단계부터 이재명 야당 대표를 위어 넣으려고 했던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검찰 수사보고서에 ‘야당 지도부-대장동 인물 관계망’ 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C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수사 착수 직후 김 후보자의 정치적 이력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인물과의 접점을 상세히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 소속이다 ▲처럼회 소속이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2021년 이재명 대선캠프 합류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겨냥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원 수성고 출신 학맥’이라는 별도의 표를 만들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도 함께 엮었습니다. 식약처 사건 본질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공교롭지 않습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처음 지명됐을 때 ‘대장동 변호사’ 라는 허위 프레임으로 공격했다가 철회한 것도 이 수사보고서가 흘러나간 것 아닙니까?

수사보고서는 22년 11월 28일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이 이재명 당시 야당 당대표 관련 각종 수사로 도합 백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 탄압 하던 시기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마저 야당 대표, 현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집요함이 엿보입니다.

시작부터 ‘답정너’ 표적수사였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담당 검사로부터 “김승원 국회의원 옷을 꼭 벗기겠다” 는 발언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

합니다. 시작부터 김승원 죽이기, 탈탈 털려는 목적을 가진, 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하기로 한, 답이 이미 정해진 수사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23년 9월 서부지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곳은 서부지점 식품의약품범죄조사부입니다. 본래 식약처가 연관된 사건이니 서부지점 식품의약품범죄조사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 23년 9월까지 식품의약품범죄조사부에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친윤석열 사단인 이진동 검사장이 서부지점장으로 부임하며 갑자기 서부지점 특수부인 형사5부로 재배당됩니다.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장관, 크게는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봅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지금 신나게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인사발령 낸 검사장을 통해 식품의약품범죄조사부에서 특수부로 넘겨, 야당 국회의원을 일망타진할 사건으로 엮어 보라고 떠민 것은 아닙니까.

셋째, 녹취록에 등장하는 국민의힘 관련자들은 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1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양모 씨의 통화 녹취록에는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 실명과 이들과의 유착을 시사하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게 좋다, 되든 안 되든 말하면 빠르다” 는 양 씨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관련자들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매체에서도, 강세찬 씨는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은 적이 없다” 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력과 인맥, 출신 학교 등 야당 당대표와 어떻게든 엮고 수사 착수 직후부터 선택적으로 집중겨냥하고 다른 한쪽은 실제로 이름이 나오고 정황이 드러나도 손대지 않는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입니까. 한동훈 사

단의 ‘가위질’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큰 가위로 먼저 여당 야당을 나누고, 불량 쪽가위로 녹취록을 짜깁기해 기소까지도 가지 못한 수사기록 더미를 페이스북에 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야당 탄압 수사가 명백히 확인된 이상,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 일동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김승원 장관에 대한 불법 표적수사를 명확히 규명하고 검찰권 남용과 정치공작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2026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